

# 영암군, 동계 조사료 파종 필지 및 생육상황 조사 시행



##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GPS장비 통해 실시 “고품질 생산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 철저”

영암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약 3주간 군과 읍·면, 조사료 경영체 합동으로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장비를 통해 동계작물 파종 필지에 대하여 파종 여부 및 생육상황 등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10일, 66개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업의 변경된 지침 및 파종 필지 조사 등 업무협조 사항을 전달하였고, 16일에는 군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조사요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여 조사 준비를 마쳤다. 영암군은 작년 기준 5,000여ha(동계 4,400,

하계 600)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고품질 조사료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사료 가격상승 및 수입 증지 등으로 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파종 필지 및 생육상황을 파악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개장 준비

### 황톳길 2km에 황토 500m³ 포설

영광군은 3대가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물무산 행복숲 질퍽질퍽 맨발 황톳길을 4월 1일부터 개장하여 10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무산 뒤편에 위치한 황톳길은 길이가 총 2km로 질퍽한 황토길 0.6km와 마른 황토

길 1.4km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걸을 수 있다.

영광군은 3월 말까지 맨발 황톳길 총 2km에 황토 포설을 통해 질퍽거리는 촉감과 재미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황톳길 입구에 설치하여 맑은 자연 환경을 확인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4월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에서 황토의 건강함을 덧입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물무산 행복숲에는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숲예술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 등 다양한 주제원이 있어 숲속 둘레길 10km를 걸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아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영광=서희권기자



## 함평군, 제18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개강

### 전국 국화 동호인 130여 명 참석

제18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지난 19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국화 동호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

국화동호회는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센터 국화전문지도사의 지도 아래 총 1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국화분재 품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국화 재배기술, 방제법, 분재 전시법에 이

르기까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만든 국화분재 작품은 오는 10월 중 개최 될 '2022 대한민국 국화대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멋진 국화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 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도 멋진 국화작품으로 '대한민국 국화대전'을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무안군, 건축물 철거 전

### 해체 허가·신고 이행 당부

무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철거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초 건축법상의 과태료인 30만원이 아닌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폭 인상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관련 붕괴사고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건축물 해체 중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신안군, 임자면충혼탑 재건립 제막식 개최

신안군은 꽃샘추위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임자면 충혼탑광장에서 조국을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문수의원, 신안군의회 김기만의원, 신안군보훈단체장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유족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임자면 충혼탑은 6.25전쟁 시 산화한 전몰용사와 주민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고 송고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널리 계승시키고자 1987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로 주변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부지 1,999㎡(604평), 탑 높이 7m, 판석포장 86㎡ 규모로 충혼탑 1식, 비문 1식,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군비 160백만원을 투입하여 재건립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히 충혼탑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해 주신 임자면 유족회에도 고마움을 전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 운영...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목포시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나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추진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제정, 관세청에만 제공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은닉재산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목포=박정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